

한민족과 통구스민족의 가신신앙 비교 연구

김 인 희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 I. 한민족 기원에 관한 제설과 문제점
- II. 통구스민족과 한민족의 관계
 1. 통구스계 민족
 2. 한민족의 기원과 통구스의 관계
- III. 주거민속에 나타난 통구스의 영향
 1. 마루신앙
 2. 조왕신앙
 3. 삼신신앙
 4. 신간(神竿)
- IV. 결 론

필자는 2003년 7월 6일부터 2003년 7월 24일까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을 답사하였다. 답사 대상 민족은 허저족(赫哲族), 다우얼족(達斡爾族), 어룬춘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몽골족이었으며 답사지역은 헤이룽지성(黑龍江省)과 내몽골의 동북부 지역이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민족은 통구스계 민족인 허저족, 어룬춘족, 어원커족이다.

그동안 한국의 청동기인을 형성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통구스는 고고학적, 역사학적, 언어학적 증거로 볼 때 한민족과는 별개의 민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결론은 각 분야의 학자들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야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로 볼 때 한민족의 족원을 통구스에서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통구스의 가신신앙과 한국의 가신신앙을 비교연구한 결과 마루신앙, 조왕신앙, 삼신신앙에 있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전파나 접촉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에 의한 결과이다. 전파나 접촉은 통구스와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주는 고구려, 부여 등의 멸망으로 인한 유이민에 의한 것이다. 통구스와 한민족의 가신신앙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인다. 첫째, 한민족의 가신신앙은 농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정착형의 가옥에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성속(聖俗)관념이 발달하였으나 통구스민족은 이동식의 주거인 시에런주(xierenzh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성속관념이 한국보다는 약하다. 둘째, 한국의 가신은 신의 성격이 분명하며 신의 기능에 따라 모셔지는 장소가 다르다. 통구스의 경우 모든 가신이 마루(malu)에 모셔지며 일부는 가신이 아닌 신들이 모셔지기도 한다. 셋째 한국의 가신은 성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다. 통구스의 가신들 사이에 이러한 가족관계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의 가신신앙을 중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성주신앙을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맺으며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가신신앙에서 성주는 강태공이나 치우로 한국과는 구분되며 중국의 가신들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다. 한국의 가신신앙 중 측간신이나 조왕신의 일부 내용은 중국 한족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언어학에서 문법이 그리 하듯 가신신앙의 기본 구조는 중국과 다르다. 이러한 견고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가신신앙 중 마루, 조왕, 삼신이 통구스민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한국 가신신앙에 통구스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한국, 통구스, 가신신앙, 공통점, 차이점

I 한민족 기원에 관한 제설과 문제점

현재까지 한국학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한민족의 기원과 문화적 기원을 북방의 알타이계 통이나 통구스계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학계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크다. 신채호, 손진태, 이병도, 김정학, 김정배, 김원룡이 모두 알타이계원설 또는 통구스계원설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북방에 한민족의 기원이 있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위의 학자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주민교체설을 따르고 있는데 주민교체설을 간단히 정리하면 신석기시기 한민족의 기층민을 형성한 사람들은 고아시아족이며 이들은 청동기시기의 통구스계통의 민족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석기와 청동기 역사는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온 관점은 신석기인은 즐문토기를 공유하는 고아시아족이며 청동기인은 비파형 청동검을 사용하는 통구스계통으로 이 또한 북방에 그 원류를 두고 있다는 주민교체설이다. “주민 2단계 교체설이 체계적인 모습으로 제시된 것은 1970년 무렵이다. 한국에서 중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석기시대인은 후빙기(後氷期)의 도래와 더불어 사냥감을 따라 북쪽으로 떠나갔으며 이후 수천 년이 지나 즐문토기를 가진 신석기인이 한반도에 이주하였다. 신석기시대인은 고아시아족인데 이들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청동기문화를 가지고 이동한 통구스 혹은 알타이 계열 집단이 이주하여 이 집단에 흡수 동화되었다는 견해이다.”¹⁾

한국의 신석기문화를 형성한 주체가 고아시아족이라는 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Shirokogoroff로 그는 시베리아의 신석기문화와 한반도의 신석기문화가 비슷하다는 점과, 또한 통구스족이 북상하기 전에 시베리아에 있던 민족은 고아시아족 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신석기문화인은 당연히 시베리아에서 이동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Shirokogoroff의 이러한 관점은 이미 1950년대에 부정되었다. 그는 고고학상의 몇 가지 공통점을 들어 두 민족이 동일집단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아무르강과 중국의 동북, 한반도의 고고유물과 문화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미 서양에서는 1950년대에 폐기된 학설이 한국에서는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이다.

최근 한국의 연구 성과를 보면 이선복은 신석기인과 청동기인의 주민교체설을 부정하고

1) 李鮮馥, 1991, 「신석기 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논총1』, 단국고대사학회연구소, p.42.

있으며, 이형구도 랴오둥(遼東) 신석기, 청동기 문화와 한반도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선복은 5년 동안의 답사를 근거로 하여 “북방지역의 문화상이 바로 우리나라에 대비되는 문화상의 소위 ‘조형’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은 커녕, 오히려 가서 보면 볼수록 우리와 틀리는 점들이 점점 더 많음을 실감하고 있다”²⁾고 하였다. 주민교체설의 근원을 찾아가며 일제의 식민지역사학과 관련이 있는데 일제는 한민족의 모든 새로운 문화요소는 외부로부터 전파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주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북한 고고학계의 경우에는 “미·일제국주의 어용학자들은 우리 민족을 열등민족으로 묘사해 놓고 하나의 우리민족을 북방계와 남방계로 갈라놓은 이론까지 가지고 나왔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반동적 견해를 폭로 분쇄하고자 하는 목적³⁾”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머리뼈, 이빨, 혈청학적인 측면, 인종적 징표 등 체질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주변 민족과 비교 연구를 한 결과 우리 조국 강토에서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창조한 조선 옛유형 사람들은 이웃 지역의 시초유형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본토기원설, 단일핏줄설을 주장”⁴⁾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은 남쪽의 고고학적 성과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연구 성과는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나 우리 민족의 기원을 한반도의 역사 발전과정 속에서 찾고자 했던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청동기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 통구스인의 경우 한민족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통구스계통의 민족으로 분류되는 만족, 어룬춘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허저족(赫哲族)은 한국어와 비교에 있어 기초어가 단 하나도 같지 않은 별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한민족이 통구스계통의 민족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과 통구스계통의 민족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주나 전파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두 문화간에는 상당한 공통점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학적인 증거로 볼 때 통구스족이 한민족 형성의 주요 원류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고대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동호, 숙신, 예맥계통의 민족이 있었는데 현재 동북지역의 소수민족과 연결시켜 보면 몽골족과 다우얼족(達斡爾族)은 동호계통에 속하며 어룬춘족, 어원커족, 허저족, 만족은 통구스에 속하는데 이들은 고대 숙신의 후예들이다. 한민족의 원류와 관련이 있는 부여와 고구려는 예맥계통으로 이들은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호계나 통구스계와

2) 이선복, 1996, 『고고학 이야기』, 가서원, p.174.

3) 백기하, 1975, 「조선사람인종징표의 년령적변화」, 『고고민속논문집』 6 역사편집부,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4) 백기하-장우진, 1973, 「조선사람머리뼈의 인류학적 특징」, 『고고민속논문집』 5 역사편집부,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백기하, 1975, 「조선사람인종징표의 년령적변화」, 『고고민속논문집』 6 역사편집부,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장우진, 1979, 「조선사람이빨의 인종적특징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7 역사편집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장우진-리예경, 1984, 「조선사람의 혈청학적특징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9 역사편집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구분되는 별개의 민족이었다.

이와 같이 고아시아족설이나 통구스기원설이 증거의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근거한다.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기 전까지 중국의 동북지역을 한국 학자들은 직접 답사할 수 없었으며 그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진 학술적인 성과도 접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는 제3국을 통하거나 몇 십 년 전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었다. 필자는 2003년 7월 6일부터 2003년 7월 24일까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을 답사하였다. 답사 대상 민족은 허저족, 다우얼족, 어룬춘족, 어원커족, 몽골족이었으며 답사지역은 헤이룽지성(黑龍江省)과 내몽골의 동북부 지역이었다. 답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면담조사와 문헌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동북소수민족과 한민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한국 청동기문화를 형성한 주체로 인식되어온 통구스민족과 한민족과의 관계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두 민족의 가신신앙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다.

II 통구스민족과 한민족의 관계

1. 통구스계 민족

“고대 중국 동북의 원시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유적으로 랴오닝성(遼寧省) 번시산(本溪山) 청즈(城子) 호우야오산(後廟山), 잉코우(營口) 쩌니우산(金牛山) 등 하부문화층 고고문화이 있다. 고고학자는 이 지역의 원시인류가 베이징원인(北京猿人)과 연대가 같은 시대의 원시인류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신석기 시대 인류유적은 북으로는 후룬베이얼(呼倫貝爾) 동으로는 년강(嫩江)에 이르고 남으로는 시라무런하(西拉木倫河)와 라오허하(老哈河), 우얼지하(烏爾吉河) 유역에 이른다.”⁵⁾ 동북 지역도 구석기 인류가 거주하였으며 그 시기는 베이징원인과 같은 시기이며 신석기 유적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동북지역도 이른 시기에 인류의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숙신에 속하는 민족으로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여진, 만족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중국의 학자들은 숙신, 읍루, 물길 등을 통구스어계 중 여러 민족으로 오해하였으나 최근에는

5) 鄭東日, 1991, 『東北通古斯諸民族起源及社會狀況』, 延邊大學出版社, p.11.

숙신이 가장 먼저 존재하였고 읍루와 물길은 숙신 이후의 또 다른 숙신족에 대한 명칭으로 보고 있다. 즉, 숙신이 멸망한 후에 새로 등장한 숙신계 민족이 읍루와 물길이라 할 수 있다. “은주시기에는 숙신이라 불렸으며 한나라 때는 부여에 속하였으며 읍루라 불렀고 삼국 시기에는 위나라에 속하며 읍루라 불렀고 남북조시기에는 물길이라 불렀고, 수당시기에는 말갈이라 불렀다. 고구려가 망한 후에 말갈과 고구려유민은 발해를 세웠다. 발해는 거란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요나라 때 여진이라 불렸다.”⁶⁾ 후에 금나라를 세웠고 중국을 거의 300년간 통치한 청나라의 주인이기도 하다.

“읍루(挹婁)라는 두 글자는 현재 민족어에서는 의로(懿路)라 쓰는데 이 말은 혈거리는 뜻으로 숙신계 민족이 혈거를 하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⁷⁾ 즉, 읍루라는 말은 혈거를 하는 생활습속상의 특징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지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고대 민족은 동북 지역의 형세의 변화에 따라 소멸과 재건을 반복하였으며 현재 민족, 어룬춘족, 어원커족, 허저족을 형성하였다.

어룬춘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숙신계통이라는 것으로 어룬춘과 어원커의 언어는 모두 통구스어에 속하며 최초의 조상은 숙신이며 이후 읍루, 물길, 말갈, 여진 등이 어룬춘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룬춘, 어원커는 동호계통인 실위(室韋)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어룬춘이 숙신, 읍루, 여진 등의 후예라고 주장한 사람은 『만족간사(滿族簡史)』의 편집에 참여한 천위수(陳玉書)와 순진지(孫進己)가 있다. 천위수는 “근대 언어학, 인류학 연구의 성과에 근거해 볼 때 어룬춘족은 통구스계에 속한다.----어룬춘은 숙신, 말갈에서 기원하며 계속해서 중국의 동북 변경 지역에서 생활하였다. 어원커족과 함께 우더가이(兀底改), 우량허(兀良哈) 또는 ‘산림 중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다”⁸⁾고 하였다. 순진지는 “어룬춘 등은 실위계의 발실위(鉢室韋)에서 기원하지 않았다. 『위서』 「실위」 전에서 ‘실위의 언어는 고막해, 거란, 두막류국과 같다’⁹⁾고 하였는데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실위어는 통구스어에 속하지 않고 몽골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발실위는 어원커 등 민족의 선조가 아니다. 동시에 발실위의 소재지는 현재의 가시엔동(嘎仙洞)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고대 척발인(拓撥人)이 처음으로 거주한 곳이다. 척발인은 몽골어족에 속한다. 따라서 어룬춘, 어원커는 숙신계의 읍루에서 기원하였다”¹⁰⁾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위서』의 내용 중 등장하는 두막류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여가 멸망한 후에 부여의 후손들이 세운 국가로 예맥계의 민족이라

6) 烏熱爾圖 주편, 1993, 『鄂溫克風情』, 內蒙古文化出版社, p.37
 7) 呂思勉, 1987, 『中國民族史』,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137.
 8) 陳玉書, 1962, 『關於鄂倫春族的來源』, 『文史哲』, 第4期.
 9) 『魏書』 「室韋」 “室韋語與庫莫奚, 契丹, 豆莫婁國同.”
 10) 孫進己, 1987, 『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 p.230.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맥계의 민족이 동호계의 민족과 언어가 같은 것은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족간사』에서는 “여진인의 조상은 숙신, 읍루, 물길, 말갈로 16세기 후반기에 누루하치의 지도 아래 지엔조우(建州) 여진이 여진의 각 부락을 통일하고 여진이 핵심이 되어 다른 민족을 흡수하여 민족을 형성하였다. 일부 여진부락은 변경에 위치하여 민족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바로 지금의 어원커, 어룬춘, 허저 등의 조상”¹¹⁾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어룬춘족의 기원은 숙신계 민족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6세기 여진족의 통일과정에 변경에 있어 통합되지 못한 이들이 현재 어룬춘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펑권스(馮君實)와 자오잔(趙展)은 『어룬춘족간사(鄂倫春族簡史)』에서 어룬춘족은 실위에서 기원한다고 하였다. 펑권스는 명청시기 어룬춘의 활동범위는 바이칼호 동쪽의 헤이룽강(黑龍江) 남북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민족을 찾아내어 어룬춘과 관련이 있는 민족을 찾아내면 어룬춘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자고이래로 헤이룽강 상류는 양한 시기 선비족이 활동한 지역이며 하류는 숙신의 거주지이다. 남북조시기 헤이룽강 상류는 실위가 위치하였고 하류는 말갈부가 있었다. 당나라 때는 먼저 하류에는 흑수도독부를 설치하였고 상류에는 실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북부실위가 어룬춘족의 조상”¹²⁾이라고 하였다. 펑권스의 견해는 고대 민족의 활동지역에 근거하여 어룬춘족의 기원을 살필 것으로 헤이룽강의 상류지역에 실위가 활동하였고 이 지역은 어룬춘족의 활동지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룬춘은 실위에서 기원하였다는 설로 정리된다. 자오잔은 “『당회요』에서 ‘실위의 언어는 말갈과 서로 통한다’¹³⁾고 한 점을 들어 북실위의 각 부는 통구스계통이며 북실위는 어룬춘의 조상이라 하였다.”¹⁴⁾ 『어룬춘족간사』에서는 “숙신은 통구스족의 한 지계로 어룬춘족과 친연관계가 있다고 하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다. 중국의 사료로 볼 때 어룬춘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은 남북조 시기의 실위이다. 실위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물길 이북의 모든 민족을 지칭한다. 여러 실위 중에 발실위가 어룬춘과 연원관계가 있다”¹⁵⁾고 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어룬춘과 어원커는 실위에 속하며 실위의 언어는 몽골어족으로 통구스어족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위서』 「실위」편의 “실위어가 고막해, 거란, 두막류국과 같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당회요』에서는 “실위의 언어가 말갈과 서로 통한다”라고 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신당서』에서도 “그 언어는

11) 『滿族簡史』編寫組編, 1979, 『滿族簡史』, 中華書局, p.2.
 12) 馮君實, 1979, 「鄂倫春族探源」, 『吉林師大學報』, 第2期.
 13) 『唐會要』“室韋 言語與靺鞨相通.”
 14) 趙展, 1992, 「對蒙兀室韋的質疑」, 『學習與探索』, 第2期.
 15) 『鄂倫春族簡史』編寫組編, 1983, 『鄂倫春族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pp.7-8.

말갈과 같다”¹⁶⁾라고 하였으며, 『통전』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위의 언어는 말갈과 가까운 언어였음을 보여준다. 위 문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위의 언어는 동호계의 고막해, 거란과도 관련이 있고 숙신계의 말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실위의 언어는 알타이어계의 몽골어족에도 속하고 같은 알타이어계인 통구스어족에도 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은 두 언어가 모두 알타이어계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 증원의 한족들이 이들의 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언어학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어룬춘족의 언어는 통구스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볼 때 어룬춘족은 통구스계통의 민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원커족의 기원은 “고고학과 인류학의 연구성과로 볼 때 어원커족의 조상은 대체로 바이칼호의 주변과 동쪽으로는 헤이룽강 중류 북쪽에 거주하였다. 기원전 2,000년 전 동석기 병용시기 어원커족의 조상은 바이칼호 연안에 거주하였다. 동석병용시대 바이칼호 연안 거주민의 복장과 어원커인의 복장의 장식품(앞치마와 같은 양식)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어원커인과 동석기병용시대의 바이칼 연안에 거주한 사람들은 족원상 직접적인 연원관계가 있는 것”¹⁷⁾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원커족은 어룬춘족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르(鄭東日)는 어원커 등의 민족은 숙신계통의 민족이라 하였다. 내몽고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의 어원커족 학자 우원다라이(烏云達來)는 어원커족의 발생지는 말갈 칠부(七部) 중의 하나인 우쭈구부(烏素骨部), 안취구부(安居骨部)¹⁸⁾로 그들은 우쭈리강(烏蘇里江) 유역에 거주하였다. 3세기 말에서 17세기까지 7차례 거친 이동을 하였다.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민족학, 민속학의 방법으로 증명을 할 때 헤이룽강 유역은 어원커족의 발원지로 어룬춘, 허저는 같은 계통의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흑수말갈, 생여진은 같은 조상에서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다. 어원커족의 조상은 생여진이며 그들은 생여진의 후예”¹⁹⁾라고 하였다.

허저족은 어룬춘이나 어원커 보다 더 복잡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허저족의 기원에 대하여 다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10세기 초 헤이룽강, 송화강, 우수리강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르얼인(奇勒爾人)과 현지의 페이아커(費雅喀), 현재의 아이누인과 혼합되었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여 통구스인과 융합되어 현재의 허저족을 형성하였다. 민족은 지령(奇楞)과 허젠(赫真) 등의 22개의 씨족으로 구성되었다.”²⁰⁾ 『허저족간사(赫哲族簡史)』에서는 “허저족의 원류와 민족의 형성은 오랜 역사적 발전 과정 중 통구스 계통의

16) 『新唐書』 “其語言一一鞞鞞也.”

17) 烏熱爾圖 주편, 1993, 『鄂溫克風情』, 內蒙古文化出版社, pp.1-2.

18) 骨은 강 또는 하류의 뜻.

19) 烏熱爾圖 주편, 위의 책, pp.2-3.

20) 于曜飛黃任遠, 2002, 『赫哲族與阿伊努文化比較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p.4.

만어족, 몽골인, 동부연해와 헤이룽강 유역의 토착민족, 고아시아의 쿠이에족(庫頁族) 그리고 한족 성분이 결합되어 형성된 민족이다. 따라서 언어, 체형, 문화 등 방면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최근 고고발굴에 의한 출토문물과 유적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허저족은 청나라 초기 이미 다양한 원류를 가진 민족의 결합체를 형성하였다”²¹⁾고 하였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룬춘, 어원커, 허저는 같은 어속에 속하는 민족으로 혈연적으로도 공동의 기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어원커, 어룬춘, 허저족 신체어의 음을 비교한 결과 17개조의 단어 중 어룬춘과 어원커는 100%로 같다. 허저족과 어룬춘, 어원커와 비교한 결과 음이 같은 것은 51개조로 88%이고 다른 것은 12%이다. 수사의 경우 19개 조를 비교하였는데 허저족, 어룬춘, 어원커어는 완전히 같았다. 수사를 포함한 전체 기초어 중 음이 다른 것은 2조뿐이었다. 전체 기초어 36개의 단어 중 현재 통구스어족의 음이 같은 것은 94.74%이고 음이 다른 것은 5.26%이다.”²²⁾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세 민족은 기초어를 공유하고 있어 공동의 기원을 가진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어룬춘의 기원이 실위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여도 실위는 혈연적인 공동체라기 보다는 다민족연합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어룬춘의 기원이 된 발실위는 숙신계의 민족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구스계통의 세 민족인 어룬춘, 어원커, 허저는 숙신계 민족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민족의 기원과 통구스의 관계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민족은 예맥족이다. 예와 맥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삼국시기 문헌에 보이는데 당시 두 민족은 모두 부락의 단계에 있었으며 후에 예와 맥은 여러 차례의 분화와 융합을 거쳐 마지막에 예맥민족이 되었다. 한나라 이전에는 예와 맥을 구분하여 부르다가 한대에 이르러 비교적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예맥이라 부르게 되었다. 부여는 예맥족에서 처음으로 분화되어 나온 민족이며 가장 강대한 민족이다. 부여는 예맥족의 후예 민족으로 송화강(松花江) 유역 북부, 즉 라린하(拉林河)와嫩江(嫩江) 하류 일대 평원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대략 서한 말에 지린시(吉林市)를 중심으로 한 예나라 땅에 부여국을 건설하였다. 부여국은 당시 동명을 대표로 한 맥족의 하나로 송화강을 건너 예나라의

21) 劉忠波, 1984, 『赫哲族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p.11.

22) 鄭東日, 1991, 『東北通古斯諸民族起源及社會狀況』, 延邊大學出版社, p.50.

땅에 국가를 건립하였다.

고구려의 기원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보면 예맥기원설, 탁리국기원설, 부여기원설, 염제기원설, 고이기원설, 상나라기원설이 있다. 이 설들은 총체적으로 볼 때 동이족기원설이라 할 수 있다. 예맥, 염제, 고이, 상나라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기원전 4,300년에서 2,300년까지 싼둥반도에 존재한 따원코우의 동이족과 일정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지린은 “고구려의 명칭이 고이에서 유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고구려는 맥족의 국가이며 부여의 한 갈래이었다. 그리고 부여 동명왕은 고리국(稟離國)의 왕자이다. 이 고리국은 사적에 따라 그 문자를 달리하고 있다. 『논형』에는 탁리(稟離), 『위략』에는 고리(稟離), 『후한서』에서는 색리(索離)라고 썼다. 자형상 유사한 데서 생긴 어느 하나의 오기이다. 고구려의 명칭은 반드시 고리(稟離)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따라서 고이는 고려와 관련이 있다”²³⁾고 하였다. 『후한서』에서 “구려는 맥이다”²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종족상으로 볼 때 맥족에 해당한다. “기원전 3세기 이전 문헌들에서는 모두 맥족을 ‘맥’이라고 쓰고 예맥이라고 쓰고 있지 않은 사실”²⁵⁾로 볼 때 예와 맥은 일정 정도 문화적 차이가 있었으며 3세기 이후 문화가 통합되어 하나의 민족처럼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학계에서는 예족과 맥족을 중국 싼둥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진시기의 동이²⁶⁾로 보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한민족의 기원이 북방의 알타이어계의 민족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예맥족은 주변의 동호계 민족이나 퉁구스계 민족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동북에서 생활한 각 민족의 조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지역성 원시문화가 표현되며 연대 또한 서로 다르다. 출토된 유물과 사료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때 남부와 서남부의 채도와 흑도문화는 중원에 속하고 서부의 세석기문화는 동호족 조상의 문화이며 중부, 동부, 동남부의 세석기와 청동기문화는 예맥인의 문화이며 동북부의 세석기문화는 숙신의 조상들의 문화이다.”²⁷⁾ 이와 같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세 계통의 서로 다른 문화가 고대 동북지역에는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점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위서』 「물길전」에 의하면 물길은 동이의 가장 변방에 있는데 언어가 홀로 다르다”²⁸⁾라고 한 것으로 보아 숙신계 민족

23) 리지린, 1989, 『고조선 연구』, 열사람, pp.173 ~ 176.

24) 『後漢書』 「高句麗」 “句麗, 一名貊耳.”

25) 리지린, 위의 책, p.139.

26) 曲石, 1986-3, 「試論濊貊與華夏·東夷族的關係」, 『北方文物』, pp.68 ~ 71.

27) 烏熱爾圖 주편, 1993, 『鄂溫克風情』, 內蒙古文化出版社, p.12.

28) 『魏書』 「勿吉傳」 “勿吉 ---于東夷最疆, 言語獨異.”

인 물질은 동이인 고구려나 부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몽골어족의 몽골어, 예맥어족의 조선어, 퉁구스어족의 어원커어 중 신체어와 수사 36개를 대조한 결과 35개조의 단어 중 조선어와 몽골어는 단 하나의 단어도 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이 없었으며 어원커어와 조선어도 같거나 비슷한 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²⁹⁾고 한다. 다우얼어와 몽골어는 기초어에 있어 공통점을 보이며, 어원커어와 어룬춘, 허저어도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조선어, 즉 한국어가 이들 언어와 전혀 공통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어가 형성되던 시기에 한민족과 이들 민족은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혈연적인 친연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이족은 『죽서기년』 이전의 동이와 『삼국지』 이후의 동이로 구분되는데 『죽서기년』 이전의 동이는 중국 산둥(山東) 신석기문화인 따원코우(大汶口)문화의 주인공인 동이족을 말하며, 『삼국지』 이후의 동이는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족을 말한다. 고대 한민족은 산둥성의 동이족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따원코우의 동이족과 한민족과의 관계를 편두, 발치, 대인국, 고인돌, 이차장, 구함구습속(口含球習俗) 등의 예를 들어 증명한 바 있다.³⁰⁾ 따원코우의 동이족 문화가 고조선문명권에 속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그 근거는 “고조선 토기의 독특한 유형인 팽이형 토기가 중국의 따원코우문화에서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따원코우문화의 도기상의 일출문양이 바로 아사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산둥성의 신석기문화가 고조선문명권에 포함된다”³¹⁾는 것이다. 그리고 체질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한국인의 머리뼈 모양을 보면 구석기에서 신석기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머리뼈의 길이가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유전자 유입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신석기인의 머리뼈는 산둥의 룡산문화(龍山文化) 담당자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청동기인은 중국의 허베이성(河北省)을 비롯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省) 출토 머리뼈들과 더 가깝게 나타난다”³²⁾고 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성으로 볼 때 한국의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시기는 산둥성의 동이족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혈연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따원코우의 동이족과 동북 동이족의 관계를 접촉에 의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90년대 초반기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에서는 “양문화의 내원이 처음부터 다르고 또 접촉과 교류도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³³⁾, 고고학적인 성과로 볼 때 “산둥과 동북지역은 상호 영향에 의한 부분적인 공통점을 제외하면 각자 자신들의

29) 鄭東日, 1991, 『東北通古斯諸民族起源及社會狀況』, 延邊大學出版社, p.24.

30) 김인희, 「上古史에 있어 韓中之 文化 交流」, 『東아시아古代學』 第2輯, 東아시아古代學會, 2000. 한민족과 동이족과의 관계의 증명은 위 논문으로 대신하겠다.

31) 慎鍾度, 2001, 「古朝鮮‘아사달’文樣이 새겨진 山東 大汶口文化」, 『韓國學報』 제102집, 일지사 불.

32) 박선주, 1997, 「우리 겨레의 뿌리와 형성」, 『韓國 民族의 起源과 形成(上)』, 小花, p.198.

33) 李成珪, 1991, 「선진문헌에 보이는 동이의 성격」, 『한국고대사논총』 1, 단국고대사학회연구소.

독자적인 문화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³⁴⁾이라고 하여 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접촉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계는 수양투오즈(雙砬子) 중층문화를 고조선의 문화³⁵⁾로 보고 있는데 수양투오즈유적은 위에스문화(岳石文化)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시기이며, 이러한 결과가 이주에 의한 것일 경우 고조선 문화는 썬동의 동이족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문화는 통구스계 문화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빈번한 문화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예맥계 민족인 부여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유민들이 통구스계통의 민족에 융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해경』에서 “숙신국은 백민의 북쪽에 있다”³⁶⁾라고 하였는데 “안재홍은 백(白)은 맥(貊)과 마찬가지로 붉은 음역과 관련된 가차자로 보고 고대 한족과 관련시켰다.”³⁷⁾ 『산해경』의 「해외서경」에서 백민의 특징을 서술한 부분에서 “몸이 희고 피발을 하였다”³⁸⁾하였는데 피발은 동이족의 특징으로 곧발을 한 몽골계 민족과는 구분되는데 백민이 피발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동이계 민족으로 숙신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기』 「화식열전」에서도 “연은 북쪽으로 오환과 부여에 접하고 있다”³⁹⁾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오환과 부여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 중 부여와 관련된 내용에서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천 리 떨어져 있으며 남으로는 고려와 접하고 동으로는 읍루와 접하고 서로는 선비와 접한다”⁴⁰⁾고 한 것으로 보아 부여는 몽골계 민족인 선비와도 접하고 숙신계 민족인 읍루와도 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인적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사자를 북연에 보내어 같은 종족으로서의 예를 베풀었다. 북연의 왕 고운은 시어사 이발을 보내어 화답하였다. 운의 조부 화는 고구려의 지파이다. 스스로 고양씨의 후예라고 하여 고(高)로 씨(氏)를 삼았다. 모용보가 태자로 있을 때 운이 무예로써 태자를 모셨으니 보가 아들로 삼아 모용씨의 성을 주었다”⁴¹⁾고 한다. 고운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고희(高和)가 고구려 사람으로 모용보의 아들이 됨으로써 모용씨를 갖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모

34) 奇修延, 「東夷의 개념과 실체의 변천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제42호.(『韓民族의 形成과 發展』, 백산학회 편, 백산자료원, 1999에서 재인용.)

35)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조선전사』 1 원시편, pp. 255-260.(李成珪, 「先秦 文獻에 보이는 ‘東夷’의 성격」, 『한국고대사논총』 제1집, 단국고대사학연구소, p.130에서 재인용하였음)

36) 『山海經』 「海外西經」 “肅慎國, 在白民北.”

37) 정제서 역주, 1994, 『산해경』, 민음사, p.241.

38) 『山海經』 「海外西經」 “白身被髮”

39) 『史記』 「貨殖列傳」 “燕北隣烏桓, 夫餘.”

40) 『三國志』 「東夷傳」 “夫餘在長城之北, 玄黃千里, 南與高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4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遣使北燕 且紇宗族 北燕王雲 遣侍御史李拔報之 雲祖父高和 句麗之支 自云高陽氏之苗裔 故以高爲氏焉. 慕容寶之爲太子 雲以武藝 侍東宮 寶子之賜姓慕容氏.”

용씨는 선비계의 민족으로 모용씨의 조상은 고구려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나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유민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부여가 멸망한 후에 부여 유민은 두막루라는 국가를 세웠다. 『위서』 「두막루」에 관한 내용을 보면 “두막루국은 물길에서 북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락(洛)이라는 강에서 육천 리를 가야 하는데 옛날의 부여”⁴²⁾라고 하였으며 『위서』의 두막루에 대한 내용은 부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내용으로 풍속이 부여와 일치한다. 이로 볼 때 두막루는 부여가 멸망한 후에 부여 유민들이 세운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는 “고막해, 거란과 같다”⁴³⁾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막루는 이미 동호계의 언어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고구려 포로들을 당의 내지로 강제 이주시킨다. “고구려유민의 당나라로의 집단이동은 645년 당 태종의 원정이 끝난 후에, 두 번째는 669년, 세 번째는 681년에 각각 실시되었다.”⁴⁴⁾ 구체적으로 이동한 유민의 수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학자들은 그 수를 다르게 보고 있다. 이병도는 “14만 명이 중국의 내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았고”⁴⁵⁾ 김문경은 “20만 명 정도가 이주한 것으로 보았다.”⁴⁶⁾ 중국의 양바오룽(楊保隆)은 “약 23~24만 명 혹은 27만에서 28만 명으로 계산되며 고구려의 총인구는 15만 호로 약 75만 명으로 볼 때 고구려가 해체된 후 중원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은 고구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중국의 내지로 강제 이송된 사람들 외에는 현지에 남아 발해를 건국하였으며 또 일부는 신라로 투항하였다. 발해의 멸망 후 이들은 속신계 민족에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막루나 발해의 경우로 볼 때 예맥족은 통구스 계통의 민족인 만족, 어룬춘족, 어원커족, 허저족의 일부로 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은 혈연적인 집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식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을 혈통적으로 단일한 계보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홍망과 함께 주변민족과 융화하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동북소수민족들의 역사적 계통을 직선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42) 『魏書』 「豆莫婁」 “豆莫婁國，在勿吉國北千里，去洛六千里，舊北夫餘也。在室韋之東，東至於海，方二千里，其人士著，有宮室倉庫，多山陵廣澤，於東夷之域最爲平敞，地宜五穀，不生五果，其人長大，性疆勇，謹厚，不寇抄，其君長皆以六畜多官，邑落有豪帥，飲食亦用俎豆，有麻布衣，制類高麗而幅大，其國大人，以金銀飾之，用刑嚴急，殺人者死，沒其家人爲奴婢，俗媠尤惡妬婦，妬者殺之，尸其國南山上至腐，女家欲得，輸牛馬乃與之，或言本濊貊之地也。”

43) 『魏書』 「列傳·室韋」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同。”

44) 김문경, 1984, 「唐代的 高句麗遺民과 徙民策」, 『唐代的 社會와 宗教』, 송진대학출판사, p.20.

45) 李丙燾, 「高句麗의 一部遺民에 대한 唐의 推戶政策」,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46) 김문경, 1984, 「唐代的 高句麗遺民과 徙民策」, 『唐代的 社會와 宗教』, 송진대학출판사, p.20.

47) 楊保隆, 1998, 「高句麗族源與高句麗人流向」, 『民族研究』 제 4기.

III 주거민속에 나타난 동구스의 영향

1. 마루신앙

어룬춘족과 어원커족은 시에런주라는 천막형 가옥에 거주하는데 그 안에 마루신을 모신다. 허저족의 경우 이미 한족식의 가옥에 거주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려 마루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룬춘족은 시에런주 출입구의 맞은편 즉, 가장 안쪽에 화수피함이나 주머니에 넣어 신상을 모시는데 이 신을 쥐보르간이라 한다. 쥐는 어룬춘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보르간은 신이라는 뜻이므로 쥐보르간은 가신이라는 뜻이다. 쥐보르간을 모시는 장소를 마로 또는 마루라 하기 때문에 마루보르간이라 하기도 한다. 마루는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로 그 자체가 신성시된다.

우취티엔(吳曲天)⁴⁸⁾ 선생에 의하면 “마루보르간은 한 씨족 사회에 하나씩 있으며 이동을 한 후에 수령이 거주하는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하고 시에런주를 지은 다음 수령의 집에 마루보르간을 모신다. 시에런주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 정면에 바로 보이는 중앙으로 바닥에서 50~60cm 떨어져 있다. 이곳을 마루라 부르고 이곳에 모시는 신을 마루보르간이라 한다. 마루보르간은 가족, 말꼬리털 또는 화수피에 목탄으로 그리기도 한다. 마루는 하늘과 같은 개념으로 힘이 가장 강한 신으로 전지전능한 신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관샤오윈(關小雲)⁴⁹⁾에 의하면 “마루신위의 신상은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율이 있다. 대체로 상층, 중층, 하층으로, 즉 천지인으로 나누어 신상을 배치한다. 먼저 2~3개의 버드나무가지를 반원형으로 구부리고 여기에 9개의 버드나무 가지를 끼우는데 이것은 신을 올려놓는 선반이다. 이런 시령을 어룬춘어로 바이타라티라 한다. 시령의 가장 위쪽에는 일월성신을 모신다. 가장 중심에 태양신을 모시고 그 다음 달과 별신의 신상을 올린 다음 매신과 용신, 번개신 등의 신상을 올린다. 태양신과 달신을 모신 아래 공간에는 신상을 전문적으로 모시는 곳이다. 신상은 종이나 천에 그린 것이다. 예를 들면 추허뿌칸, 양난카탄 신상이 있다. 신위를 모신 아래는 땅 위에 신상을 직접 늘어놓는다. 순서에 따라 우리우치엔, 암흑신, 쿠리진, 카언신상 등을 배열한다. 신상을 배열한 후에 제물을 바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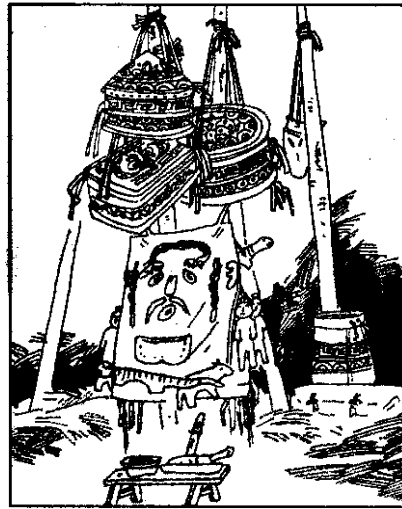
48) 吳曲天, 남, 41세, 阿里河 廣播電視局, 2003년 7월 18일.

49) 關小雲, 1993, 『鄂倫春族風俗概覽』, 黑龍江省民族研究所, pp.9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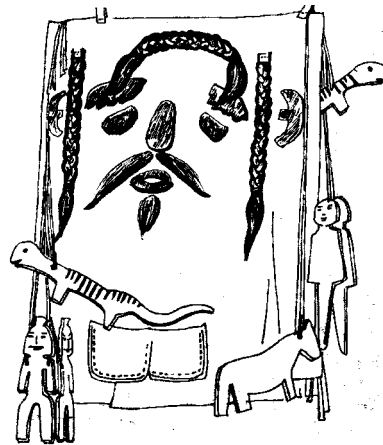
종류로는 짐승고기, 과일, 버섯 등이 있다. 평상시에 신상은 모든 가정이 스스로 보관하는데 화수피로 만든 신감 안에 넣어 마루에 걸어놓는다”고 한다.

그림 1에서 위쪽에 걸려 있는 것들은 화수피로 만든 상자 안에 신을 모셔둔 것이다. 마루에서 모시는 신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은 아조루보르칸이다. 어른춘족박물관⁵²⁾에서 본 아조루보르칸은 남녀 쌍으로 여자는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묶었고 남자는 머리가 뾰족하다. 갈대로 엮은 것도 있고 소나무로 만든 신상에 어깨와 허리에 노루가죽을 붙인 것도 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아 각 가정마다 신상의 구체적인 모양이 다를 수 있다. 중간의 사람모양의 얼굴을 한 것은 자오르보르칸이다. <그림 2> 이 신은 가축을 돌보아 주는 신으로 마루에 모셔지는 신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른춘족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신상은 노루가죽에 말꼬리털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표현하고 입과 눈은 다른 가죽을 덧대어 표현하였으며 눈썹과 코에는 털을 붙였다. 이 신에는 나무로 깎은 각종 동물과 사람 형상이 걸려 있다. “이 신은 말을 사육한 이후에 등장한 신으로 매년 말이 새끼를 낳았을 때 말의 젖을 이 신에게 바친다. 고라니가 새끼를 낳는 계절에는 고라니 새끼를 잡아 바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말이 번식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⁵³⁾는 것으로 보아 이 신은 유목생활과 함께 유목민족에게서 들어온 신이며 이 신이 어른춘족 사회에 정착하면서 수렵신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루에는 자오르보르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신들이 모셔진다. 각종 동물과 사람모양의 신, 태양신, 별신, 달신 등이 모셔진다.



<그림 1> 마루와 자오르보르칸⁵⁰⁾



<그림 2> 자오르보르칸⁵¹⁾

50) 鄂·蘇日台, 2000, 『鄂倫春狩獵民俗與藝術』, 內蒙古文化出版社, p.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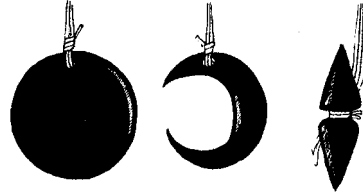
51) 鄂·蘇日台, 2000, 『鄂倫春狩獵民俗與藝術』, 內蒙古文化出版社, p.201.

52) 內蒙古 阿里河 鄂倫春自治旗 鄂倫春族博物館, 2003년 7월 18일.

53) 趙復興, 1991, 『鄂倫春民族游獵文化』, 內蒙古人民出版社, p.221.



<그림 3> 마루에 모셔진
시54)



<그림 4> 태양신, 달신,
별시55)



<사진 1> 용신과 호랑이신

<사진 1>의 나무로 만든 용신과 호랑이신은 어룬춘족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 밖에도 뱀신, 새신, 여우신 등이 마루에 모셔진다.

우취티에에 의하면 “마루는 신성한 장소로 마루 근처에는 수령이 잠을 자고 사면도 마루 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마루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은 그 집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루보르간에게 씨족의 평안을 빌며 수렴을 하기 전에는 보르간의 입에 고기를 붙이거나 피를 묻히는데 이는 신에게 먹인다는 뜻이다. 가장 맛있는 부위를 보르간에게 준다. 제의를 지낼 때는 동물의 머리를 바치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 담배나 술을 마실 때도 이렇게 한다. 이동할 때는 마루보르간을 화수피 상자에 넣어 말에 싣고 이동을 하는데 여자는 이 말 근처에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자들이 마루

54) 鄂蘇日台, 2000, 『鄂倫春狩獵民俗與藝術』, 內蒙古文化出版社, p.203.

55) 鄂蘇日台, 2000, 『鄂倫春狩獵民俗與藝術』, 內蒙古文化出版社, p.198.

신과 접촉을 금하는 것은 피부정과 관련이 있다. 마루에 모셔지는 신들은 살아 있는 실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한다는 의미로 피를 입에 묻히는데 어룬춘족박물관에 있는 신들도 모두 입에 피가 묻어 있었다.

秋葉隆⁵⁶⁾의 마루보르칸에 대한 조사에서 “문의 정면에 해당하는 자리를 마로 또는 마루라고 한다. 이곳에 가신을 모신다. 가신은 쥐보르칸이라 한다. --여자가 이곳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루는 조선인이 가옥의 정면에 모시는 성주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점이 있다. 이는 둘 사이에 민속상의 연속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어원커족도 마루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몽골 후룬베이얼맹(呼倫貝爾盟)에 속하며 따싱안령(大興安嶺) 동북쪽에 위치하는 어얼구나기(額爾古納旗) 어원커족의 경우 씨족 조직인 우리령(烏力楞)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마루는 씨족의 조상과 관련이 있는 신으로 각각의 우리령은 마루를 가지고 있다. 『어원커족사회역사조사』⁵⁷⁾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루는 12개의 물건과 12개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요한 신은 서우오커(舍臥刻), 즉 조상신이다. 마루는 어원커인이 원형의 가족주머니에 들어 있는 각종 신령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 주머니를 마루라 한다. 주머니에는 서우오우오(舍臥臥) 또는 서우오커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동물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알흑(嘎黑)새의 가족, 작은 북, 순록의 굴레, 가족끈, 시베리아 다람쥐신, 서리(舍利, 뱀신), 커루나스(刻如那斯), 물오리가족 등과 순록을 보호하는 아롱(阿隆)신과 곰신이 있다.

마루에 대한 제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령의 수렵인은 사슴을 잡았을 때 구리커언(固力克恩)이라는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동물의 머리를 올려놓는데 머리방향은 이사하는 곳으로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동물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머리, 식도, 심장, 간, 폐는 꺼내 추오루오즈 안으로 가져가는데 마루 앞에 있는 아오거타언(奧格塔恩)이라는 나무 가지를 놓고 가장 오른쪽에는 머리를 놓고 그 다음 나머지 부위를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다. 그 다음 순록을 탈 때 쓰는 안장으로 쓰는 거적을 덮어놓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마루를 밖으로 청하여 주머니에서 각종 신을 꺼내 진열한 후에 거적을 벗겨내고 심장을 찢어 심장의 피를 신의 입에 묻히고 뺨의 뼈를 해체하고 머리를 정면에서 네 조각으로 자르고 내장을 삶아 다시 가져온다. 심장 윗부분의 고기는 잘게 자르고 작은 국자에 비계가 많은 고기를 올린다. 카와와라는 풀을 태워 연기를 내서 마루에

56) 秋葉隆, 1995, 「大興安嶺東北部鄂倫春族調查報告(一)」, 『北方民族與薩滿文化-中國東北民族的人類學調查』, 中央民族大學出版社, pp.12-26.

57) 內蒙古自治區編輯組, 1986年 11月, 「額爾古納旗使用馴鹿鄂溫克人的調查報告」, 『鄂溫克族社會歷史調查』, 內蒙古人民出版社, pp.232-234.

연기가 가득 차도록 하며 마루를 추오루오즈⁵⁸⁾의 먼 곳으로 가져 온 후에 마루 앞이나 옆에 삶은 고기를 쏟아 붓는다. 이후 우리렁에 속해 있는 각 가정의 순위에 따라 고기를 잘라 조금씩 먹는다.

평상시에 마루는 추오루오즈 밖에 모신다. 이사를 갈 때는 나무를 세워 만든 삼각구조물의 꼭대기에 마루를 걸고 아래는 카와와폴과 웅치르(翁基勒)나무를 놓아 연기를 내서 마루에 연기를 쏘인다. 마루에 연기를 쏘이는 것을 어원커어로는 우라가니령(烏拉嘎尼楞)이라 하는데 오염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어룬춘족과 어원커족의 마루는 한국의 마루와도 비교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남향을 한 출입문의 바로 정면에 마루가 위치하며 마루라는 공간의 신을 모시는 공간이며 제의의 공간으로 신성시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마루에 조상단지나 성주단지를 모시고 있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루는 매우 신성한 곳으로 인식된다. 종(宗)자의 경우 ‘마루 종’이라 하는데 그 한자 구성을 보면 집 안에 신을 모셨다는 의미로 마루가 신과 관련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산마루나 용마루도 산의 높은 곳을 의미하는 글자로 마루는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병도는 『삼국사기역주』에서 마립은 마리(頭), 마루(宗, 棟, 廳) 등과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극소(極所) 정상을 뜻하며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막리지와도 상통하는 말이라 하였다. 후세의 상감마루하(上監瑪樓下) 상감말루하(上監抹樓下)라 하였고 하인이 자기 상전을 영감마님, 나라마님이라 하였는데 마루하, 말루하 마님 등의 말은 모두 마립간에서 유래하였다.

2. 조왕신앙

필자는 한국과 중국 한족의 조왕신앙을 비교연구한 바가 있다.⁵⁹⁾ 그 결과 중국의 조왕은 부부신 또는 남성신이며 봉건통치자의 모습을 투영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의는 남자들이 담당하고 조왕은 옥황상제와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신으로 인식된다. 한국의 경우 조왕신은 여성신으로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담당하며 특히 여성이 제의하는 신이기 때문에 육아를 담당하기도 하여 중국의 조왕과는 차이가 난다. 중국의 조왕신앙과 한국의 조왕신앙은 명칭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8) 어원커족의 주거. 시에런주와 같은 형식이나 어원커족은 추오루오즈라 한다.

59) 김인희, 2002년 9월 9일, 「한·중 조왕신앙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의 현황과 전망(김경수 편)』, 역락, pp.775-815.

어룬춘족은 불신을 투오오우보르칸이라 부른다. “불은 온기를 취하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으나 사람에게 재난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투오오우보르칸은 큰 신이라 할 수 있다. 불신은 여신이며 노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자들이 모신다. 매년 1월 1일에 불을 피우는 곳에 절을 하고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다른 집에 가서 세배를 할 때도 먼저 불을 피우는 곳에 세배를 한다. 매년 식사를 할 때는 먼저 불을 피우는 곳에 음식물을 던져 공경을 표시한다. 불에 대한 숭배를 표시하기 위하여 불 위쪽에서 물을 따르거나 칼로 불을 자르는 것, 불꽃이 튀는 장작을 싫어하는데 화신의 분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⁶⁰⁾ 최초의 화신의 형상은 여성으로 자상하고 부드럽고 선량한 모습으로 어머니와 같은 형상이었다. 사람들은 불을 두 번째 어머니로 여겼다.

어룬춘어로 화신을 구룡타라고도 하는데 불에 대한 금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고 있다. “한 여자는 몸에 불똥이 튀어 그녀의 옷을 태워버렸고 몸에 화상을 입은 여자는 화가 나서 수렵용 칼을 꺼내 불똥미를 마구 찢러 불을 죽였고 그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다른 곳에 가서 불을 피우려고 하였으나 불이 피워지지 않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모닥불의 근처에는 자상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 전체가 피로 덮혀 있었다. 이때야 그녀는 자신이 찢어서 화신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알고 잘못을 뉘우친 후에 다시 불을 피울 수 있었다.”⁶¹⁾

어룬춘족은 불에 대한 많은 금기를 가지고 있다. 불을 뛰어넘지 말아야 하며 모닥불을 함부로 찌르지 말아야 한다. 불 위에서 물을 따르지 말고 불에 불결한 것들을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 불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기 위해 새해를 맞이하거나 명절을 맞이하여 식사를 할 때 먼저 화신에게 제사하고 술, 고기, 야채를 불에 먼저 던져 넣어 공경을 표시하고 기도를 한다.

어원커족의 경우에도 어룬춘족과 비슷한 화신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지역에서 전승되는 예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어룬춘족의 화신은 자상의 할머니의 모습이며 두 번째 어머니로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모신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조왕신이 자애로운 할머니로 인식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여성이 제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또한 중국의 한족과는 구분된다. 어룬춘이나 어원커는 수렵민이고 한국은 농경민이었으며 각각의 생활환경에 맞는 조왕신앙을 형성하여왔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동일화시킬 수는 없으나 신격이나 사제자, 신의 성격으로 볼 때 한국의 조왕은 중국보다는 통구스의 화신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

60) 趙復興, 1991, 『鄂倫春民族游獵文化』, 內蒙古人民出版社, p.221.
61) 關小云, 1993, 『鄂倫春族風俗概覽』, 黑龍江省民族研究所, p.78.

3. 삼신신앙

차빠지향(查巴奇鄉)은 내몽골(內蒙古) 후룬베이얼맹(呼倫貝爾盟) 아롱기(阿榮旗) 후오얼지누투키(霍爾奇努圖克)의 어원커족향으로 따싱안령(大興安嶺)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자작나무가 많기 때문에 차빠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차빠지는 어원커어로 자작나무가 많다는 뜻이다. 이곳은 산이 많고 토층이 얇아 주로 수렵에 종사한다. 『어원커족사회역사조사(鄂溫克族社會歷史調查)』⁶²⁾의 내용을 참조하여 차빠지향의 삼신신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낭낭신은 아이가 홍역에 걸렸을 때 모시는 신이다.

이 신은 아이를 돌보는 신으로 한국의 삼신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명의 신이 그려져 있어 삼(三)이라는 수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삼신은 ‘태’를 삼이라 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기도 하고 산신(産神)의 와전으로 보고 있기도 하여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다른 종류의 삼신이 있다. 이들은 사람의 탄생, 죽음, 병의 원인은 신과 귀신이 인간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신화와 전설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하나는 샤먼의 견해로 그들은 태양이 뜨는 곳에 백발의 할머니가 있는데 그녀는 커다란 유방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은 모두 그녀가 보내준 것이라고 한다. 다른 견해는 북두칠성이 아이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가 없는 사람은 음력 12월 27일 저녁 북두칠성에 7개의 등을 키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빈다. 북두성은 영혼을 주고 남두성은 나이를 준다고 한다.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보낸준다는 사고는 한국의 삼신신앙과도 성격이 일치한다. 북두칠성이 아이를 보내준다는 사고는 한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5> 낭낭신

4. 신간(神竿)

헤이룽지양성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볼

62) 內蒙古自治區編輯組, 1986年 11月, 『阿榮旗查巴奇鄉鄂溫克族調查報告』, 『鄂溫克族社會歷史調查』, 內蒙古人民出版社 pp. 113-115.

수 있다. 살아 있는 비둘기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철로 비둘기 모양을 만들어 지붕 위에 올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곳은 대체로 맞배지붕인데 <사진 2>와 같이 용마루 위에 양철로 만든 비둘기를 올렸다. 양쪽 끝에 올리는 경우와 지붕의 중간에 두 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비둘기의 모양도 앉아 있는 모양을 올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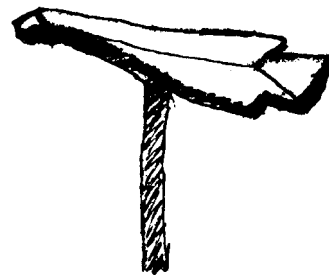


<사진 2> 지붕 위의 양철로 만든 비둘기

하면 어떤 경우에는 더욱 생동감을 살려 날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최근의 새로운 경향은 빨간 벽들에 양철지붕을 얹는 것인데 이런 집의 경우 새를 양쪽 용마루에 올리고 맞배를 한 곳에는 별을 달았다. 이러한 현상은 락안령(大興安嶺)을 넘어 내몽골로 가면 한 두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에 비해 헤이룽지양성의 경우는 전역에서 거의 보인다. 아래 사진은 헤이룽지양성 퉁지양시(滬江市) 지에진코우향(街津口鄉) 허저족 마을에서 발견한 양철 지붕 위에 새를 얹은 집의 모습이다. 중국동포의 가옥인 퉁지양시 신팡촌(新村) 춘화개고기집(春花狗肉館)의 경우에도 비둘기를 양철로 만들어 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둘기 신상을 허저족어로 커쿠라 한다. 신상은 두견새와 비슷하며 집 밖의 마당에 신간을 세우고 그 위에 올려놓는데 샤먼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샤먼에게 길을 알려준다. 봄, 가을에 사슴신을 위하여 굿을 할 때 소년이 손에 비둘기 신간을 들고 신들의 앞에서 길을 이끈다. 비둘기를 올린 신간을 투오루오라 하며 용과 뱀이 그려져 있다. 과거에는 허저인의 집에서는 투오루어기둥 위에 말[斗]을 올려놓아 까치에게 먹이는 습속이 있었으며 제사를 지낼 때는 말에 곡식을 담아 뿌리는 습속도 있었다. 새들이 날아와 곡물을 먹으면 조상과 신령의 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⁶⁴⁾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예전에는 신간에 비둘기를 올리던 것이 지금은 가옥의 변화에 따라 양철로 올려 지붕에 올리는 형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비둘기를 올린 신간이 한국의 솟대와 모양은 유사하나 한국의 솟대는 농경과 관련이 있고 허저족의 신간은 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허저족의 비둘기는 영혼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샤먼의 천계여행과 관련이 있고, 한국의 솟대



<그림 6> 신간 위의

63) 黄任遠, 2003, 『赫哲那乃阿伊努原始宗教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p.178.
64) 黄任遠, 위의 책, p.178.

는 해당국의 대상이 되며 풍농제의와 관련이 있다.

IV 결 론

그동안 한국의 청동기인으로 인식되어온 통구스는 고고학적, 역사학적, 언어학적 증거로 볼 때 한민족과는 별개의 민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결론은 각 분야 학자들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야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로 볼 때 한민족의 족원을 통구스에서 찾기는 어려울 듯 하다.

통구스의 가신신앙과 한국의 가신신앙을 비교연구한 결과 일정정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전파나 접촉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이다. 전파나 접촉은 통구스와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주는 국가의 멸망으로 인한 유인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고의 대상이 된 통구스와 한민족 사이에 위치하는 만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구스와 한민족의 가신신앙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인다. 첫째, 한민족의 가신신앙은 농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정착형의 가옥에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성속(聖俗)관념이 발달하였으나 통구스민족은 이동식의 주거인 시에런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성속관념이 한국보다는 약하다. 둘째, 한국의 가신은 신의 성격이 분명하며 신의 기능에 따라 모셔지는 장소가 다르다. 통구스의 경우 모든 가신이 마루에 모셔지며 일부는 가신이 아닌 신들이 모셔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곰신은 토렘신이고 태양이나 달은 천지자연신으로 이들 신은 가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셋째, 한국의 가신은 성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다. 통구스의 가신들 사이에 이러한 가족관계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의 가신신앙을 중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성주신앙을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맺으며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가신신앙에서 성주는 강태공이나 치우로 한국과는 구분되며 중국의 가신들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다. 한국의 가신신앙 중 측간신이나 조왕신의 일부 내용은 중국 한족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언어학에서 문법이 그리 하듯 가신신앙의 기본 구조는 중국과 다르다. 이러한 견고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가신신앙 중 마루, 조왕, 삼신이 통구스민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한국 가신신앙에 통구스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역사가 매우 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A Comparative Study of the House Spirit Belief between the Tungus and Koreans

Kim, In-Hee

This paper is based on fieldwork conducted from July 6, 2003 to July 24 of 2003 among the Tungus groups Hezhe, Daur, Oloqun, Owenke, and Mongolian in the areas of Heilongjiang and Inner Mongolia Provinces. Recognizing the need for more in-depth study among these groups, the present research shows that the Tungus people are archeologically, historically, and linguistically different from Korean Han ethnic group and challenges the link between Korean and Tungus groups since the Bronze Age.

The comparison between the House Spirit belief of the Tungus people and Koreans reveals certain commonalities in the Maru, Kitchen, and Samshin Spirit practices. There are two possible reasons for such commonalities. Historically, the Korean Han ethnic group and the Tungus people were geographically intimate, and contact or transmission between the two groups occurred naturally.

Also, immigration of refugees from the fallen Koguryo and Puyo to the Tungus region added another dimension of cultural contact.

In contrast to the common features shared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also exist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House Spirit belief. The Korean Han group's House Spirit belief is based on the agricultural practices that separates the inside sacred and outside secular world of the houses, whereas the Tungus ethnic group's House Spirit belief is based on mobile herding life style with a less distinction between in and outside of house. Additionally, each Korean House Spirit has its own distinctive personality, and each spirit is placed and worshipped according to its function. In the Tungus

group, all the □□House Spirits□□ are located and worshipped in□□malu,□□and some of the spirits are non-conventional house spirits. Moreover, Korean □□House Spirits□□ form a kinship structure, placing Songju, the highest spirit, at the center. In the Tungus practice, such structure is not found.

The tight cohesive family formation among the house spirits in the Korean□□House Spirit□□belief is also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its comparison with Chinese belief. In China, the highest spirit is Jiang Taigong or Qiwu, and the house spirits do not have kinship relations. Korean□□ Outhouse Spirit and Chowangshin are related to the Han Chinese□□ counterpart on certain levels? however, their basic structures are different. It is clear that the correlation of □□Malu□□□□Chowangshin□□ and□□Samshin□□between Korea and Tungus indicate important role of Tungus cultural elements within Korea□□ □□House Spirit□□ belief.

keyword : Tungus, Korean, House Spirit, commonness, difference